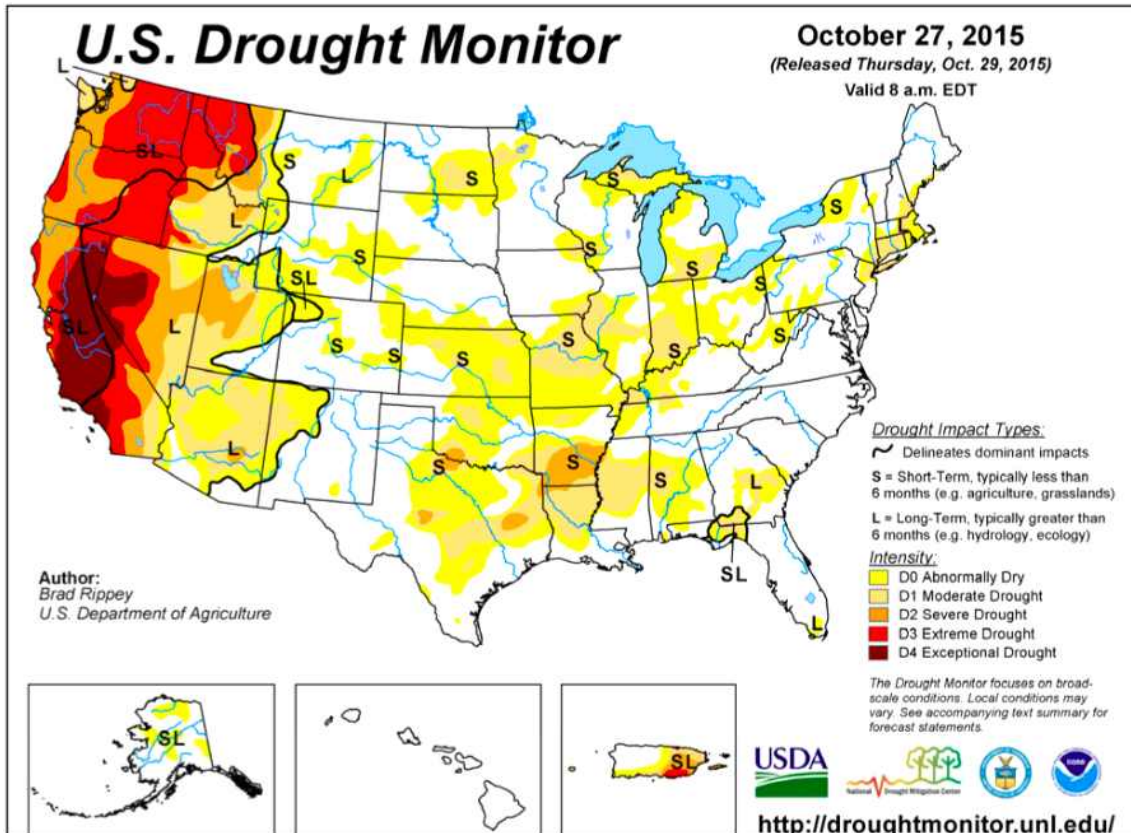


11월 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4)

□ 미국 기후 현황(10/25~11/31)



주 초반 동부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렸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구름이 남부와 중부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비가 내렸다. 텍사스 남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주 내린 비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걸프 연안 지역과 텍사스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중서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비는 밀 재배지역에는 단비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와 북부 고원지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미 전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고, 이런 현상은 특히 남동부와 극서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대평원 동부와 중부, 옥수수 재배지역 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선선한 날씨가 유지되고 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과 로키산맥 북부지역 등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캔사스 동부와 중부에서도 비가 내려 농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10/26~11/01)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한주간 평균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경우, 특히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1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남부 곡창지대와 델타 지역에서 내린 비는 농작물과 목초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 걸프 연안 지역과 서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4°F 이상 기온이 높았고, 남부 대평원부터 남서부의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았다.

### ■ 옥수수

11월 1일 기준 전국 옥수수 수확률은 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6%p 앞서고 있다. 북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지난 한주간 수확작업은 19%p 진행되었고, 노스 다코타와 남부 다코타, 네브라스카에서도 지난 한주간 수확작업이 18%p 진전되었다.

### ■ 겨울밀

11월 1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88%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2%p 뒤쳐진 상황이다. 지난 주말 기준 전국 발아율은 72%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 늦은 상황이다. 남부 다코타 지역에서는 발아율이 9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주에 비해 20%p 증가한 수치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생육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2%p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p 낮은 수준이다. 캔사스의 경우, 겨울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재배자의 비율은 4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p 낮은 수치이다.

### ■ 면화

11월 1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50%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4%p 뒤쳐진 수준이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한주간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는데, 주 전체 재배면적의 3%만 수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대두

11월 1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1%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앞선 수준이다. 미시시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평년보다 높은 수확작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 세계 기후 현황(10/25~10/31)

- 유럽: 중부와 동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서부와 남부의 곡창지대에는 비가 내렸다. 독일과 폴란드, 남동부 유럽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이 이어졌다. 그리스에서도 화창한 날씨 아래 면화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옥수수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지난 한주간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도 평년보다 5°C 이상 높아 농작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등 지중해 인근 지역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0~50mm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 영국 등에서도 2~50mm의 비가 내렸고, 이들 서부 지역 대부분은 기온이 평년보다 4°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져 겨울 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부에서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남부와 중부 러시아에서는 비가 내렸다. 곡창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서부에서는 날씨가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러시아 중부에서도 비가 아주 조금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90일 동안 강우량은 평년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겨울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겨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흑해의 동쪽 지역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5~30mm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 평원의 Hebei, Shangdong, Anhui 북부와 Jiangsu 등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서부의 Henan, Shanxi 남부 지역에서는 10~25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1~3°C 정도 기온이 낮은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새로 파종한 농작물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50mm 정도의 비가 내려 유채 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호주: 서호주 지역에서는 5~25mm의 비가 내렸고, 북부지역에서도 비가 내려 겨울 농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주 북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겨울 작물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밀 재배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에서는 전역에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평균적으로 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5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2°C 높은 날이 이어졌고,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남부와 서부에서도 평년보다 2~5°C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빅토리아주 북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치솟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주요 곡창지대에 비가 내렸고, 이번 비는 겨울 작물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La pampa 동부, Buenos Aires 북부, Santiago del Estero, Chaco, Formosa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 25~100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이번 비는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던 Cordoba 북부 지역에 단비가 되었다. 남서부 곡창지대의 경우 지난 한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Cordoba 남부 일대는 전반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낮 최고기온은 여전히 30°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보다 북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1~2°C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0월 29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31%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파종률이 45%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많이 뒤쳐진 상황이다. 옥수수의 파종률은 3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p 낮은 상황이다.

■ 브라질: 중부의 대두 생산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파종 직전 토양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 Mato Grosso, Tocantins, Minas Gerais 등에서는 25~75mm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브라질 대두 생산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두가 생산된다. 이번 비는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던 기온도 다소 낮추어 주었는데, 지난주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올랐던 것과 달리 비가 내린 이후로는 낮 최고기온이 35°C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남동부에서는 사탕수수과 키시 생장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중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과 달리, 남부지역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Rio Grande do Sul의 밀 수확률은 10월 29일 기준 40%이며, Parana의 경우 밀 수확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